
GKEDC 국제기구 네트워크 강화 및 2025 KGID 참석 출장

2025. 10. 19. (일) ~ 10. 25. (토)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1

출장배경 및 목적

- (배경)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이하 GKEDC)은 2018년 개관 이후 세계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함께 국제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기후 변화·디지털전환·경제사회발전을 주제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 세계은행 녹색성장신탁기금(이하 KGGTF)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솔루션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한국 녹색 혁신의 날(Korea Green Innovation Days, 이하 KGID)」을 매년 개최
- (목적) KDI GKEDC는 세계은행 KGGTF의 초청을 받아 2025 KGID에 참석하여 ▲기후 금융 세션 발제 ▲양자면담을 통한 사업 발굴 ▲국내외 관계자와 네트워킹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워싱턴 주재 핵심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지식공유사업 관련 협력 가능성을 논의

2

출장 개요

- (출장기간) 2025년 10월 19일(일) ~ 25일(토), (출·입국일 기준)
- (출 장 지) 미국 워싱턴 D.C.
- (출 장 단) 총 3인

#	성명	소속 및 직위
1	강동수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단장
2	선종인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국제협력1팀장
3	홍은선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국제협력1팀 연구원

- (활동사항)
 - (2025 KGID 행사 참석) 10월 20일(월) ~ 22일(수) 전 일정에 참석할 계획이며, ▲1일차 세션 2에서는 패널 토론 ▲3일차 기후금융 관련 세션에서는 발제 및 토론
 - (양자면담 진행) 세계은행 고위급 인사 및 사업팀 실무진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GKEDC 네트워크의 저변을 확대
 -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세계은행 및 미주개발은행을 중심으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제협력 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발판 마련

3

출장일정

□ 주요 일정

날짜	시간	활동사항	비 고
10/19 (일)	10:25-10:55	인천 출발 → 워싱턴 도착	KE 093 선종인, 홍은선
	17:40-19:40	보스턴 출발 → 워싱턴 도착	DL 5843 강동수*
10/20 (월)	09:00-09:30	KGID 개회식	
	09:30-10:30	KGID 세션 2. 지속가능한 일자리	강동수 패널 토론
	12:15-13:35	VIP 오찬	
	13:50-15:05	KGID 세션 6. 일자리와 기술	
	15:20-16:30	KGID 세션 7. 녹색성장을 위한 AI 및 신기술	
	17:30-18:30	KGID 환영 리셉션	
10/21 (화)	10:00-10:30	WB EAP-ENV 양자면담	
	10:45-12:00	KGID 세션 2-3. 교통/철도	
	12:00-13:30	WB 디지털전환 동향 관련 간담회	
	13:30-14:00	WB 글로벌 디지털전환 부서 면담	
	14:00-15:00	WB CCG 양자면담	
	15:15-16:45	KGID 세션 2-11. 기후금융	강동수 발제
	17:00-17:30	WB 거버넌스팀 면담	
	17:30-19:00	WB 사업추진방향 관련 간담회	
10/22 (수)	10:00-11:00	WB AFE팀 양자면담	
	11:00-11:40	WB 페루 에너지팀 양자면담	
	11:00-11:40	국제기구 파견직 기획재정부 국과장 면담	
	11:40-13:00	WB·IDB 프로젝트 관계자 간담회	
	13:15-16:00	KGID 현장 견학(아마존 HQ2)	
	16:30-17:30	한국철도산업협회 양자면담	
10/23 (목)	10:30-11:30	WB KWPF 설명회	
	12:00-13:00	WB 글로벌 교통팀 면담	
	14:00-15:00	IDB Invest 양자면담	
	16:30-17:30	IDB 에너지팀 양자면담	
10/24(금) -10/25(토)	13:15-17:40 (+1)	워싱턴 출발 → 인천 도착	KE 094 강동수, 선종인, 홍은선

※ 강동수의 경우 보스턴 출장(25.10.17.-10.19.) 이후 워싱턴 출장 합류

4

기타 사항

① 항공편

☐ 강동수

항공편	출발지	도착지	출발시간	도착시간
DL 5843	보스턴	워싱턴	10월 19일(일) 17:40	10월 19일(일) 19:40
KE094	워싱턴	인천	10월 24일(금) 13:15	10월 25일(토) 17:40

※ 보스턴 출장(25.10.17.-10.19.) 이후 워싱턴 출장 합류

☐ 선종인

항공편	출발지	도착지	출발시간	도착시간
KE093	인천	워싱턴	10월 19일(일) 10:25	10월 19일(일) 10:55
KE094	워싱턴	인천	10월 24일(금) 13:15	10월 25일(토) 17:40

※ 세계은행에서 항공편 및 숙박(4박) 지원

☐ 홍은선

항공편	출발지	도착지	출발시간	도착시간
KE093	인천	워싱턴	10월 19일(일) 10:25	10월 19일(일) 10:55
KE094	워싱턴	인천	10월 24일(금) 13:15	10월 25일(토) 17:40

※ 세계은행에서 항공편 및 숙박(4박) 지원

② 숙박정보 (미국 워싱턴 D.C.)

호텔명	Hyatt Place Washington DC/Georgetown/West End
주 소	2121 M St. NW, Washington, D.C. 20037, United States of America
연락처	+1 202 838 2222

2025 KGID 행사 참석 및 발제

1. KGID 개회식

- ☐ 일 시: 2025. 10. 20.(월), 09:00-09:30
- ☐ 장 소: WB HQ, MC Preston
- ☐ 연 사: Juergen Voegele (WB Planet 부총재), 김상부(WB 디지털전환 부총재), 문지성(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 ☐ 주요내용
 - (Juergen Voegele, WB Planet 부총재)
 - 녹색성장이 전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전환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 기획재정부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녹색 일자리 창출의 임팩트를 확산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신뢰와 파트너십에 대한 감사를 표현
 - (김상부, WB 디지털전환 부총재)
 - 디지털전환은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등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연결고리이며, 기술을 혁신·생산성·경제적 기회의 동력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녹색성장으로 가는 경로임을 강조
 - (문지성,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 한국은 지난 13년간 KGGTF에 누적 1억 2,800만 달러를 기여함으로써 한국의 녹색전환 경험을 세계에 공유하고 있으며, 보조금 1달러당 평균 246달러의 세계은행 및 외부재원을 추가 동원한 점 또한 매우 유의미
 - 환경을 대가로 한 경제성장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AI를 중심으로 디지털전환과 환경을 아우르는 다분야 연계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핵심임을 역설

2. KGID 세션 2. 지속가능한 일자리

□ 일 시: 2025. 10. 20.(월), 09:30-10:30

□ 장 소: WB HQ, MC Preston

□ 연 사: Maitreyi B Das (WB 개발금융 VP 신탁기금 및 대외협력국 국장),
Richard Damania (WB Planet VP 수석 이코노미스트), 오영훈(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강동수(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단장), Phillemon Mathebula
(남아프리카공화국 농업·농촌개발·토지·환경부 총괄 국장)

□ 주요내용

공통질문①. 기술혁신과 녹색성장이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 (Richard Damania, WB Planet VP 수석 이코노미스트)

- 기술혁신은 노동 대체 효과와 생산 확대 효과를 동시에 수반하며, 기술 확산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두 효과 간 균형과 분배의 공정성, 고용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정책이 좌우함을 강조
- 산업혁명기 기계화로 인해 초기에는 임금이 하락하고 실업이 급증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상품 가격 인하를 통해 수요가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한편, 기술혁신이 소작농을 몰락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킨 스코틀랜드의 사례처럼 기술의 효율성만으로는 포용적 성장을 보장할 수 없으며 정책 설계가 핵심 변수임을 지적
- 최근 조사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기업은 단기적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생산성과 숙련 효율이 크게 향상되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고급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증가
- AI 또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기술 도입이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위험을 관리하고 생산성 향상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제주도의 AI 도입 사례 중 하나인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과 관련해 제주도 내 1,120개 교차로에 설치된 AI 시스템이 긴급 차량 통과 시 녹색 신호로 자동 전환되면서 이동 시간을 대폭 감소할 수 있었다고 소개
- 또한, 디지털 기술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례로서 제주도 내 재래시장에 QR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카드 결제 비율이 900% 이상 상승한 결과에 대해 공유

-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20%를 넘은 제주도에서 금년 4월 4시간 동안 완벽하게 RE100을 실현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AI와 디지털 기술의 접목, 그리고 전력시장 거래제라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 달성한 본 성과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재확인

○ (강동수,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단장)

- 녹색성장, AI·디지털 기술, 지속가능한 고용이라는 세 축을 서로 통합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며, 녹색 전환 과정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고속권 인력에게 편익을 집중시키는 반면 저속권 노동자 다수가 뒤처지는 현상이 재현될 수 있음을 강조
-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에 따르면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교육의 발전 속도를 앞지르면 성장률은 높지만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사회 전체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기술혁신이 숙련노동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
- 녹색성장과 디지털전환이 지속가능한 고용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인 교육훈련 체계가 필수이며, ▲평생학습과 재·업스킬링 프로그램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양성 ▲취약계층도 참여할 수 있는 학습 접근성 보장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

○ (Phillemon Mathebula, 남아프리카공화국 농업·농촌개발·토지·환경부 총괄 국장)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고소득 지역에서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농촌과 저소득 지역의 대다수는 교육 및 기술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디지털전환의 변화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
- 실제로 농촌 주민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개발과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의 핵심은 정부 개입을 통해 지역 사회가 기술 변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설명
-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촌은 기후변화로 인한 계절변화, 병충해 증가, 생산성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으며, 기술·교육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아프리카 농촌이 기술 기반 성장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패널질문①. 녹색성장과 기술혁신을 개발 어젠다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

○ (Richard Damania, WB Planet VP 수석 이코노미스트)

-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과거 중국이나 한국처럼 先성장 後환경 발전 논리가 오늘날의 기후 현실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저소득 국가 인구의 80% 이상이 오염된 공기, 물, 토양이라는 3중 악조건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은 성장의 대체제가 아니라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적자본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강조
- AI와 같은 첨단기술은 교육 수준이 충분히 갖춰진 인구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한편, 역사적으로 교육 없이 성장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석유·다이아몬드 등 자원 기반 성장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심화함을 경고
- AI가 노동을 대체하는 방향이 아닌 노동을 보완·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제언하며, 기술 발전이 고용창출·생산성 향상·형평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투자와 정책 설계를 추진하기를 권고

패널질문②. 녹색성장과 고용창출의 측면에서 제주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작년 2월 제주도는 지속 가능 정책 모델의 일환으로 제주형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7개를 제시했으며,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을 통한 2035년 탄소 중립 계획과 AI 디지털전환 계획도 함께 수립
- 제주형 SDGs 계획은 제주도정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모든 법정 계획에 우선하며, 탄소중립 계획 및 AI 디지털전환 계획과 하나의 세트처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설계되었기 때문에 산업과 행정의 전 분야에서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

패널질문③. 국가 간 지식교류와 관련해 어떤 방식이 효과적이었는가?

○ (강동수,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단장)

-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은 정교한 계획보다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는 체계적 이행(delivery) 덕분이었다고 설명하며, 모든 국가가 계획을 세우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드물기 때문에 KDI GKEDC는 정책 집행 및 전달 메커니즘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개
- 성공적인 정책이행 시스템은 성과지표 설정 → 실행·모니터링 → 피드백·개선이라는 순환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 성과관리 시스템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던 영국 토니 블레어 정부의 Delivery Unit (PMDU) 사례를 공유

- 녹색성장 전략 수립 또한 경제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실행력과 피드백 구조를 제도화해야만 녹색성장의 비전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국가 간 지식공유는 단순한 전략 교환이 아닌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개선하는 실행 역량의 공유로 이어져야 함을 역설

패널질문④.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 중인 정책은 무엇인가?

○ (Phillemon Mathebula, 남아프리카공화국 농업·농촌개발·토지·환경부 총괄 국장)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엄격한 환경 인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는 태양광·풍력 시설조차 개발이 제한되며, 이는 환경 보호에는 효과적이지만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석탄 의존을 줄이는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초래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나 태양광·풍력 설비 제조 등 핵심 부품의 생산 투자가 국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반면 원자재를 단순 수출하고 완제품을 수입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일자리 창출 기회는 제한된 상황
- 이에 다국적 기업 유치나 현지 제조 역량 강화를 주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60%를 상회하는 청년 실업률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 및 특별경제구역(SEZ) 제도는 물론, 기술훈련·직업교육·지식교류를 통해 청년층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

공통질문②. 향후 5~10년간 녹색성장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우선과제는 무엇인가?

○ (Phillemon Mathebula, 남아프리카공화국 농업·농촌개발·토지·환경부 총괄 국장)

-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토지는 흑인 소유를 금지하거나 강제 이주를 시행하는 등의 불평등이 만연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 토지개발 정책은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제조업 활성화, 산업화 촉진 방향으로 추진 중
- 현재 모든 부서를 통합한 원스톱 인허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행정절차 상의 지연 문제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도 쉽게 적응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Richard Damania, WB Planet VP 수석 이코노미스트)

- 녹색성장은 자연자본을 물적자본처럼 생산요소의 하나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므로 환경을 경제모델의 핵심 변수로 다루기를 강조

- 저소득 국가에서는 고가의 드론기술이 아니라 단순한 색상표와 같은 기술이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기술일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의 도전과제와 발전 수준에 맞는 적정 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
- AI는 행정역량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유용한 도구인 동시에 정보 편향, 알고리즘 왜곡 등의 정치경제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AI 활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정책적·제도적 관리가 필요함을 역설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제주는 현재 20%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5년 70%까지 확대하고 나머지 30%는 기저전원을 전소터빈으로 전환해 7:3의 에너지 믹스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며, 대규모 전력수요가 부족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건물 냉난방의 전기화(히트펌프 전화)로 수요를 끌어올릴 예정
- 제주도민 모두가 발전사업자가 되는 모델의 일환으로, V2G 전기차 보급 확대로 차량이 이동식 발전기 역할을 수행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태양광 실증으로 농가도 발전에 참여하는 등 분산자원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투자 유치 여건을 조성할 계획

○ (강동수,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단장)

- AI가 기술 진입장벽을 낮춰 비전문가를 비롯한 누구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 교육은 기술을 이해하는 것보다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
- 앞으로는 복잡한 수학이나 코딩 같은 기술적 역량보다 창의적 질문과 문제정의 능력이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 설명하며, 이러한 사고방식을 키우는 교육이 AI시대의 지속가능한 인재 경쟁력이 될 것이라 전망

3. KGID 세션 6. 일자리와 기술

□ 일 시: 2025. 10. 20.(월), 13:50-15:05

□ 장 소: WB HQ, MC Preston

□ 연 사: Richard Damania (WB Planet VP 수석 이코노미스트), Gaurav Nayyar (WB DECWD 경제 고문), Omar Arias (WB EAPCE 부수석 이코노미스트), 오형나(경희대학교 교수), Etienne Raffi Kechichian (WB 금융 선임 이코노미스트), 권재형(WB IFC 선임 담당관)

□ 주요 논의내용

○ (Omar Arias, WB EAPCE 부수석 이코노미스트)

- 기술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적 실행 가능성’과 ‘경제적 실행 가능성’의 통합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설명 가능하며, 개발도상국은 반복적·수동적 업무 비중이 높아 로봇 자동화에 더 취약하지만 AI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 동아시아 중진국들에서 로봇 도입으로 인한 생산 확대 효과가 일부 고용 감소를 상쇄함에도 불구하고 저학력층 임금은 하락하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개발도상국이 자동화 압력에 대응하고 AI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강화와 기술 적응 역량 제고가 필수적

○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

- 디지털전환과 녹색 전환이 노동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주요 동인은 ▲기술혁신 ▲녹색전환 ▲산업정책 변화 ▲인구구조 변화 ▲노동가치관 변화 ▲기술·역량 불일치 등을 포함
- 디지털 기술이 고속련 일자리에도 대체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녹색 기술은 고용 창출 효과가 있으나 숙련 인력 부족과 불평등 문제를 동반하므로, 일자리 보호보다는 전환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 즉 교육개혁·평생학습·재훈련·청년고용지원 등으로 인적자본을 강화하고 인간의 고유역량 육성이 필요

○ (Etienne Raffi Kechichian, WB 금융 선임 이코노미스트)

- 「Green Jobs and Competitive Eco-Industrial Parks in Haiti」 사업은 아이티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기후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녹색성장 접근법을 제시하며, 에너지·수자원·폐기물관리 개선과 지역사회 포용 강화를 핵심 목표로 추진

- 한국 사례를 통해 얻은 녹색산업 전환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부처 간 EIP 전담 팀 구성, 녹색투자기금 설립, PPP 확대를 통해 단계별(기초구축-확산-제도화)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예정

○ (권재형, WB IFC 선임 담당관)

- IFC는 세계은행그룹을 구성하는 기관 중 하나로 인프라·농업·보건·제조 등 고성장이 기대되는 잠재적 민간 분야에 전략적으로 자본을 투입하고 있으며, IFC 한국사무소는 한국 민간투자와 협력하여 신흥국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
- IFC 한국사무소는 베트남 LG이노텍의 2억 달러 규모 지속가능연계대출과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의 3억 달러 사회채권 사례를 통해 각각 친환경 제조 고용 확대 및 포용적 금융 지원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들은 고품질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제고를 동반

4. KGID 세션 7. 녹색성장을 위한 AI 및 신기술

□ 일 시: 2025. 10. 20.(월), 15:20-16:30

□ 장 소: WB HQ, MC Preston

□ 연 사: Christine Zhenwei Qiang (WB DTFDR 글로벌 디렉터), Zaki Badie Khoury & Seth Ayers (WB 디지털 선임전문관), Iftikhar Mostafa (WB 수자원그룹 컨설턴트), 임혜정(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실장), 손병현(한국전력공사 부장), 조현아(한국철도공사 차장)

□ 주요 논의내용

○ (Zaki Badie Khoury & Seth Ayers, WB 디지털 선임전문관)

- 「Shared Data and AI Platforms: Foundations for Climate Action」은 AI 기반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한 기후행동과 녹색성장을 촉진할 목표
- 전 세계 기후데이터의 8%만이 공개·기계판독형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어 국가 간 데이터 표준화와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한 상황
- 이에 WB은 데이터 공유 거버넌스 진단 도구와 AI 기반 분석 플랫폼을 개발해 국가별 기후행동 역량을 평가하고 정책수립, 기후스마트 주자, 고용창출, 회복탄력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

○ (Iftikhar Mostafa, WB 수자원그룹 컨설턴트)

- 오늘날 ▲누수 감지 ▲예측 유지보수 ▲스마트계량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등 전통적 상하수도시스템이 스마트워터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 엔지니어·자동화 기술자·AI 교육 전문가 등 새로운 녹색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시사
-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의 PRAGATI 프로그램과 마하라슈트라주의 스마트 워터 거버넌스 사례는 정밀관개-순환경제-정책개혁이 결합된 포용적 혁신 모델이 물 위기 대응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청사진을 제시

○ (임혜정, NIA 실장)

- 한국의 디지털 기술은 발전 초기 초고속인터넷과 전자정부를 시작으로 오늘날의 개방형 데이터, 클라우드, AI 인프라 등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왔으며, 2025년 AI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 제정은 AI 기반 행정 혁신을 제도화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 예상

- 한국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와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재난대응·농업지원 등 공공서비스에 생성형 AI를 적용함으로써 행정효율성과 녹색혁신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목표

○ (손병헌, 한국전력공사 부장)

- 기존 전력망이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전력의 생산·소비·저장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대두
-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AI 기반 수요예측 및 부하관리 ▲분산에너지 자원의 통합제어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계통 안정화 ▲스마트 미터링을 통한 사용자 참여형 에너지 관리 등 다양한 기술 혁신을 추진 중이며, 新 에너지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 손실 최소화와 온실가스 감축, 지역 단위의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을 도모

○ (조현아, 한국철도공사 차장)

- 한국철도공사는 AI와 공간정보를 결합한 맞춤형 서비스, 실시간 열차·역사 정보 제공, 다국어 자동응대 키오스크, 오픈 API 기반 철도정보 개방 등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추진 중
- 안전혁신과 관련하여 ▲스마트·세이프 스테이션 구축 ▲실시간 CCTV 군중 분석 ▲GPS 기반 근로자 안전 앱 ▲AI 위험 예측시스템 등을 도입하였으며, 이외에 조직 내 다양성·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

5. KGID 세션 2-3. 교통/철도

□ 일 시: 2025. 10. 21.(화), 10:45-12:00

※ 다음 일정으로 인해 세션 중간 이석

□ 장 소: WB HQ, MC 2-800

□ 연 사: Nicolas Peltier (WB 교통 글로벌 디렉터), Matthias Plavec (WB 교통 애널리스트), 조현아(한국철도공사 차장), 장한별(한국철도산업협회 차장), 안우진(한국교통대학교 부교수), 유승용(인천교통공사 부장)

□ 주요 논의내용

○ (Matthias Plavec, WB 교통애널리스트)

- 철도는 도로·항공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70~80% 낮아 가장 에너지 효율적이고 기후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국가의 녹색성장에 필수적인 인프라지만, 오늘날 국제적으로 철도 부문은 막대한 투자 격차에 직면
- WB의 철도 부문 대출규모는 총 약 60억 달러로 현재 21개국에서 약 20개의 철도 프로젝트를 수행·계획 중이며, 대표적으로 ▲인도 철도 물류 사업 ▲이집트 카이로-알렉산드리아 구간 사업 ▲터키 철도 물류 및 중부 구간 사업 ▲브라질 상파울로 2호선 연장 사업 등을 포함
- 국가별 철도정책 수립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Role of Rail in Decarbonizing Transport」, 「Railway Reform Toolkit」, 「Green Logistics for Development」, 「Developing Urban Rail Corridors in African Cities」 등의 글로벌·지역별 연구 이니셔티브를 운영

○ (조현아, 코레일 차장)

- 코레일은 21년의 고속철도 운영 경험 및 99.8% 정시율 등 세계적 수준의 철도 운영·유지보수(O&M)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한국의 독자기술을 바탕으로 고속철도 차량을 개발하고 운영
- 코레일의 해외철도사업은 ▲타당성 조사 ▲건설 ▲컨설팅 ▲기술이전 ▲O&M ▲역량강화를 포함하며, 25개국에서 50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
- 해외사업 유형으로는 O&M 중심 모델(필리핀, 탄자니아), 차량 및 정비 패키지 모델(모로코, 우즈베키스탄), 설계·조달·시공·O&M 모델(베트남), 국제연수 모델이 있으며, 2008년 이후 57개국 1,838명 대상 115개의 교육을 수행

○ (장한별, 한국철도산업협회 차장)

- 한국의 철도산업은 국토교통부(정책), 국가철도공단(건설·관리), 운영기관(코레일, SR 등), 한국철도기술연구원(R&D), 민간기업(차량·엔지니어링), 한국철도산업협회(산업협력)로 구성
- 최근 한국은 최고 180km/h 고속 운행이 가능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개설해 수도권의 통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며,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을 구축해 신호·운행 제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디지털 기반의 실시간 제어를 강화하여 국제 표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
- 수서역은 고속버스·지하철·버스가 통합된 대규모 복합환승센터로 발전 중이며, 이러한 한국형 대중교통 지향 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모델은 역세권 지역개발과 철도 정책을 결합해 교통의 효율성과 지역 경제효과 극대화를 도모

6. KGID 세션 2-11. 기후금융

□ 일 시: 2025. 10. 21.(화), 15:15-16:45

□ 장 소: WB HQ, MC 13-121

□ 연 사: 왕형근(WB KGGTF 프로그램 매니저), 김서이(WB 기후금융 전문관), 손민지(WB 환경 전문관), 강동수(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단장), 김녹영(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 문주연(국가녹색기술연구소 연구원)

□ 주요 논의내용

○ (김서이, WB 기후금융 전문관)

- 연간 3~6조 달러의 기후재원 수요 중 실제 공급은 600~8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에서 결과기반 기후재원(RBCF)와 탄소시장이 추가 재원 창출 수단으로서 부상한 한편, 오늘날 탄소시장은 ▲무결성(Integrity) 및 투명성 ▲미흡한 정책·제도 기반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이라는 도전과제에 직면
- WB의 탄소시장 참여 로드맵은 각 국가의 감축 성과 창출력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 연계 및 수익화, 대규모 감축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 글로벌 시장 구조 및 국내 역량의 구축을 지원
- PMI (Partnership for Market Implementation)는 국가실행플랫폼으로서 35개국의 탄소가격제·탄소시장 정책 설계 및 실행 능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지식·혁신 허브로서 탄소시장 가이드북 및 기술노트 등 표준형 지식자료를 제공하고 디지털 MRV 등 새로운 기술을 시험

○ (강동수,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단장)

- 기후 대응을 위해서는 대규모 민간자본의 동원이 필수적이거나 현재는 낮은 수익성, 높은 리스크 및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거대한 투자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며, 신뢰할 수 있는 공시·분류체계·탄소가격제 등의 제도 기반이 미흡해 충분히 성숙한 금융인프라 구축이 필요
- 자발적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은 민간 주도의 감축 사업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높은 기업 수요에 대응하여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거버넌스와 신용이 필요
- 시장분절 및 낮은 신용도라는 VCM의 문제점과 배출권거래제의 제한된 적용범위와 세계적 수준의 기후기술이라는 한국의 특징을 고려해 한국정부는 UNFCCC 및 GGGI와 함께 GVCN (Global Voluntary Carbon Mechanism)을 계획

○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

- 대한상공회의소의 탄소감축인증센터(KCCI Center)는 국내 최초의 VCM 인증기관으로서 기술 기반 감축 방법론의 개발·검증 및 신뢰성 있는 크레딧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투자자-산업계-정부 등 시장 참여자 간 신뢰를 구축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
- 기업의 탄소 감축·제거 활동이 KCS (KCCI Carbon Standard)의 방법론을 충족하면 KCR (KCCI Certified Reduction) 발행이 가능하며, 인증절차는 방법론 선택 및 프로젝트 준비 → 방법론 및 프로젝트의 제3자 검증 → KCS 검토·승인 → 프로젝트 실행·모니터링 → 제3자/KCS 결과 검증 → KCR 발급 순서로 진행
- 현재 탄소감축인증센터는 에너지나 산업공정, 탄소 감축·포집·저장 등 고품질 크레딧 창출 분야에 강점을 둔 기술 기반 방법론과 녹지복원 및 조림, REDD+ 등 자연 기반 방법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28개의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30개 이상으로 확대 예정

○ (손민지, WB 환경 전문관)

- WB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Mpumalanga 지역의 기후탄력적인 토지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격리 솔루션 발굴을 목표로 국가녹색기술연구소와 함께 생물학·기술 기반 방법론을 비교 및 평가했으며, 바이오차(biochar)와 생태복원을 결합한 통합적 접근이 가장 탄소격리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
- Songimvelo와 Manyeleti 자연보호구역에서는 토양 탄소 잠재력 평가를 수행하여 토양 유기탄소 잠재력과 지역 공동체의 준비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Mpumalanga 지역을 위한 탄소 금융 사업 관련 기술적·제도적 로드맵을 도출
- 본 프로젝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의로운 전환 프레임워크 및 녹색경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혜택 공유 및 생물다양성 공동편익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으며, 다른 아프리카 지역 및 세계은행 클라이언트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델 사례를 제공

○ (문주연,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연구원)

- 토양은 탄소를 약 2,400 Gt를 저장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4 per 1000’ 이니셔티브는 연간 전 세계 토양탄소의 0.4%만 증가해도 화석연료 배출을 상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토양의 탄소저장량은 토양유기탄소(SOC)의 유입과 유실 간 균형으로 결정

- 토양구조 및 탄소순환의 자연적 흐름 외에 농업·경작방식 등 인간의 토양관리 방식이 토양의 탄소 흡수 및 배출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며, ▲퇴비/바이오차 투입 ▲관개 효율 증가 ▲혼합경작/윤작 ▲재생방목 등의 관리방식은 자연기반해법 중 저비용으로 실현하기 적절한 감축 옵션 중 하나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초지 관리 GRASS 프로젝트는 지역공동체 기반의 초지 회복 및 방목이 토양탄소 증가, 생태계 복원, 생계 개선을 동시에 달성함을 입증했으며, ▲탄소수익 공유 모델 ▲혼합금융 ▲지역조직 강화의 중요성을 시사

○ (Chandra Shekhar Sinha, 기후금융 책임전문관)*

*좌장의 요청에 따라, 기후금융 전문가로서 세션 전반에 대한 코멘트를 제공

- 한국은 기후행동에 대한 강한 의지와 K-ETS라는 자체 배출권 거래제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탄소시장의 수요를 견인하는 핵심국으로 부상했으며, 한국의 NDC를 고려할 때 약 3~4천만 톤의 탄소감축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 전망
- 탄소시장의 3대 축인 다자 메커니즘(6.4조), 양자협력(6.2조), VCM 활용 모두에서 한국의 전략과 연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상공회의소의 발제는 한국 기술에 기반한 방법론 개발의 측면에서 중요한 한편, VCM에 대한 KDI의 발제는 산업 수요 창출의 측면에서 중요
- WB은 최근 싱가포르 정부와 신규 탄소시장 프로그램을 출범했으며, 일본·한국·싱가포르·중국이 향후 글로벌 탄소시장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고려해 KDI·KCCI·한국정부와의 협력 아래 한국의 탄소시장 프레임워크를 강화할 예정

7. KGID 현장견학

□ 일 시: 2025. 10. 22.(수), 13:15-16:00

□ 장 소: 아마존 HQ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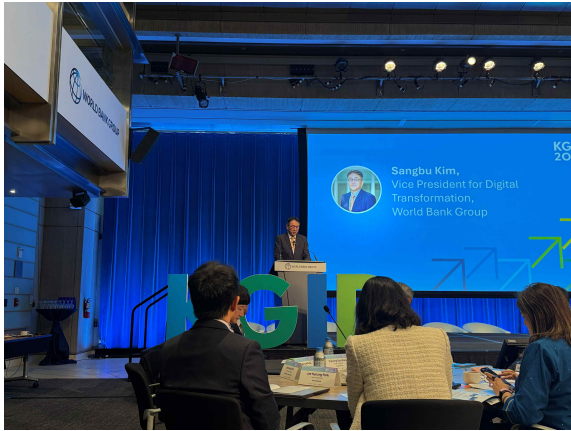
□ 주요 논의내용

○ (아마존 HQ2 개요)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위치한 아마존 HQ2는 메트로폴리탄 파크(Metropolitan Park)라는 2.1M ft² 규모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한 사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22층 타워인 재스퍼(Jasper)와 머린(Merlin)에 최첨단 업무 공간은 물론 직원을 위한 녹지와 야외 테라스를 조성

○ (특이사항)

- 1층은 공공(public)을 위한 오픈 공간으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 소유 소매업체를 위한 상업 공간과 지역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보행자 도로 및 각종 편의시설(회의시설, 공연장 등)을 포함
- 반려견과 함께 근무(Dogs at Work, DAW)할 수 있는 직원 복지프로그램이 있고, 이들의 반려견의 사진과 이름을 사진전으로 구현함으로써 반려동물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마련
- 건물 중심에 공원을 마련하고 근무시간 동안 바나나를 무료로 먹을 수 있는 ‘Banana Stand’ 를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아마존 직원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한편, 건물 내에 살아있는 나무와 꽃들을 심어 현대적 건물이지만 내부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구현
- 에너지 효율적인 친환경 사무실 환경 설계로 최신 단열 기술, 고효율 시스템, 자연 채광 극대화 등의 설계를 통해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을 대폭 감축

※ KGID 세션 사진



1. WB EAP-ENV 양자면담

□ 일 시: 2025. 10. 21.(화), 10:00-10:30

□ 장 소: WB HQ, MC 5-715

□ 참석자: Chrisophe Crepin 국장(WB), 강동수, 선종인, 홍은선(이상 KDI)

□ 주요 논의내용

○ Knowledge Bank로의 구조 개편 동향 공유

- 최근 WB은 Unified Knowledge Bank (UKB)로의 통합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IFC와의 연계 및 지역별 역할 조정을 적극적으로 논의
- 아직 운영 세부사항은 정립되지 않았으나 대출사업-정책대화-지식사업을 긴밀히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한국과의 지식협력은 UKB 구상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

○ WB EAP-ENV의 한국과의 협력 현황 소개

- Cristophe Crepin 국장은 현재 WB EAP 지역의 EVN 부서 매니저로서 싱가포르에 거주 중이며, 오는 11월 둘째 주에 서울을 방문할 예정
-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지속가능성·녹색성장 관련 협력을 지역 간, 글로벌 단위와 연결하기 위해 글로벌 부서와 EAP 부서가 공동으로 한국과의 협력 역할을 분담
- 11월 6일(목) 개최되는 2025 지식교류의날 행사에 Jason Allford 한국사무소장과 Sameer Akbar 선임 전문관이 참석 예정

○ KDI GKEDC 기관 소개

- GKEDC는 기획재정부가 설립하고 KDI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KDI 舊 캠퍼스에 위치하여 한국 경제발전 관련 전시·교육·국제협력 기능을 수행
- GKEDC는 ▲경제사회발전 ▲기후변화 ▲디지털전환이라는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WB, ADB, EBRD, IDB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과의 계약 또는 파트너십 기반 연수 사업을 운영 중
- 2025년 4월에는 블루카본을 주제로 오픈러닝캠퍼스와의 공동 연수 프로그램에 협력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금년 총 4개의 OLC 연수 중 3개를 완료

- 연수 프로그램은 매우 짧지만 압축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육 모듈이기 때문에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한국 경제 전반과 특정 주제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며, 연수 이후에는 KSP나 EDCF 등으로 사업 확장이 가능
- KDI GKEDC의 프로그램은 대화와 질문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이 직접 스스로의 문제를 정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지향하며, 현재 구축 중인 DB를 기반으로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 및 웨비나·후속 컨퍼런스 등도 추진할 계획

○ WB EAP-ENV 및 KDI GKEDC 협력방안 논의

-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해외 출장 제한을 강화하고 있어 고위 공무원 파견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해 공유
- KDI GKEDC는 자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각국 대사관을 통해 참석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참석자 선정 과정이 길고 복잡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 WB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동아태 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GKEDC의 참석자 발굴을 도울 수 있음을 논의
- WB 한국사무소의 ENV팀과 지난 9월 몽골 대기질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던 중 일정이 내년 4월로 연기된 상황임을 공유
- 이외에도 IDB Invest 농업 디지털전환 연수에 포함되었던 민간기업 간 1:1 비즈니스 미팅, WB 에듀테크 연수 이후 진행되었던 인도네시아 정부 및 한국 기업 간의 후속 미팅 등의 사례를 소개
- WB은 GKEDC의 접근이 Know-how가 아니라 Know-who, 즉 적절한 파트너 연결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감하며, 향후 기술·민간·기후 분야에서의 연계를 확대하고 몽골·인도네시아 사업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보기를 제안

2. WB 글로벌 디지털전환 부서 양자면담

□ 일 시: 2025. 10. 21.(화), 13:30-14:00

□ 장 소: WB HQ, Atrium

□ 참석자: 김상부 부총재, 최성준 국장(이상 WB), 강동수, 선종인, 홍은선(이상 KDI)

□ 주요 논의내용

○ KDI GKEDC 소개

- GKEDC는 기획재정부가 설립하고 KDI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KDI 舊 캠퍼스에 위치하여 한국 경제발전 관련 전시·교육·국제협력 기능을 수행
- GKEDC는 ▲경제사회발전 ▲기후변화 ▲디지털전환이라는 상호 연결되는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WB, ADB, EBRD, IDB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과 계약 또는 파트너십 기반 연수 사업을 운영 중
- 이외에도 매년 지식교류의날(Knowledge Exchange Days, KED)라는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작년에는 디지털전환을 주제로 WB, IDB 등 국제기구와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의 국내 민간기업 전문가를 초청

○ WB 디지털전환 분야 운영 계획 공유

- 각 프로젝트별 상황 및 맥락에 따라 세부적인 맞춤형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이를 표준화하여 대량으로 진행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성에 대해 논의 중
- 특히, WB의 프로젝트들이 주제 및 대상지역에 있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진행상황을 모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서 및 조직 차원에서 우선 주제 및 대상 국가를 특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
- 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보편화함에 따라, 김상부 부총재 또한 실제로 업무에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AI의 도입은 WB 내 업무 방식 및 조직 개편 논의에서도 고려되고 있는 상황
- 최근 한국정부와 WB은 디지털 지식센터(Digital Knowledge Center)를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전환 관련 전문성과 지식·정책 역량을 세계 각국과 공유할 계획

* 김상부 부총재는 내년 건립식에 참석 예정

3. WB CCG 양자면담

□ 일 시: 2025. 10. 21.(화), 14:00-15:00

□ 장 소: WB HQ, MC 9-715

□ 참석자: Chandra Shekhar Sinha 기후금융 책임전문관, Pierre Guiogon 기후금융 선임전문관, 김서이 기후금융 전문관(이상 WB), 강동수, 선종인, 홍은선(이상 KDI)

□ 주요 논의내용

○ WB 기후금융·경제팀(Climate Finance & Economics, CFE) 소개

- 기후변화그룹(Climate Change Group, CCG) 산하에서 탄소시장과 관련된 업무는 두 축*으로 나뉘며, CCG팀에서는 탄소시장 업스트림(국가 차원)과 관련하여 국가정책, 법제 프레임워크, 레지스트리/디지털 MRV 등 인프라, 각국 NDC와의 연계를 담당

*다른 팀은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크레딧을 펀딩 자금으로 사는 업무를 수행

*제도·정책 프레임워크 업무를 수행하는 PMI와 크레딧 구매를 담당하는 Scale, FCPF 등 별도 15개 내외 기금을 분리해 이해상충을 방지

- 매년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보고서를 발간하며, 낮은 거래비용으로 효율적인 크레딧 생성을 지원하며 그 결과를 PMI의 장기 역량개발 프로그램(3~5년 이상)을 통해 각국에 이식

○ WB PMI (Partnership for Market Implementation) 소개

- PMI는 공여국 11개국으로 구성된 다자신탁기금으로 10년 전에는 PMR (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로 국가의 기후금융 준비 단계를 지원했고 2021년부터는 이행 단계로 지원을 확대
- 지금까지 약 1억 5천만 달러를 모아 총 35개국(다년 국가프로그램 지원국 20개, 단기 지원국 15개)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 프로그램 외에도 지식창출 → 글로벌 확산 → 파트너십 확대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
- 최근 2년간 50개 이상 기관과의 집중 논의를 통해 탄소시장 인프라 5대 권고(거버넌스·데이터보안·거래무결성·공통데이터모델·디지털MRV)와 자발적-규제적 시장을 잇는 ‘Navigating Carbon Markets’ 공동 프레임워크도 공개

○ 파리협정 6조 해석 논의

- 6.2조는 UN 감독을 불필요로 하는 양자협정 기반 ITMO 이전을 다루며, 6.4조는 UNFCCC가 직접 관리하는 다자표준을 의미함을 재확인

- 무결성 확보에는 UN 감독 아래 6.4 표준을 활용하는 방식과 자발적시장 및 상응조정을 조합한 방식이 존재하며, ITMO는 무결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회계 도구로서만 기능
- 감축량은 실제 측정값과 공식 배출계수로 결정되므로 같은 기술이라도 국가별로 감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WB은 표준 설정-크레딧 발급-정책 크레딧팅까지 전주기적 경험이 있으나 주로 자문·훈련·정책 설계를 지원

○ WB PMI-한국 간 협력방안 논의

- WB은 연례 대표행사로 I4C (Innovate 4 Climate)를 독일과 스페인에서 주로 개최하였으나 2026년은 싱가포르 ‘Ecosperity Week’ 와 공동 개최 예정
- 현재 탄소시장의 중심축이 동아시아로 이동 중으로 중국 CCR (컴플라이언스 크레딧)은 연 4억 톤의 수요와 대량 크레딧이 생성될 것으로 보이며, 상하이·베이징·선전에 거래소가 있으며 CCR 가격이 배출권보다 높은 사례도 존재
- 한국에서 PMR 출범식을 개최하기도 했었으나 공식적 관계는 아직 없었으며, 캘리포니아·퀘벡·싱가포르처럼 공식 지식파트너로서 K-ETS 경험, 국제 탄소시장 연계 지식 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파트너로서의 자격·의무는 경직적이지 않고 유연하게 협의 가능
- 한국의 GVCM (Global Voluntary Carbon Mechanism)은 현재 초기 단계로 기획재정부가 GGGI 및 UNFCCC와 양자협정을 맺고 추진 중이며, 12월 예정된 투자포럼에서는 시장 설계, 6조 해석, MRV, 수요·공급·자금조달을 논의할 예정
- K-ETS는 환경부, GVCM은 기획재정부 소관이었으나 최근 정부 조직개편으로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여 향후 업무 조정이 예상되며, 지금까지 PMI는 한국과는 공식 파트너십이 없었으나 한국과의 협력 의지가 큰 만큼 확실한 정부 창구 설정이 필요
- PMI는 현존 최대의 탄소시장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서 12월 투자포럼 참여에도 긍정적이며, 최근 브라질에서 유럽연합·캘리포니아 등 기술파트너와 일주일 워크숍을 열어 탄소시장 설계와 PMI 프로그램 착수를 지원

※ 후속조치

- (KDI GKEDC) 한국정부-PMI 협력 채널 연결 필요
- (KDI GKEDC → WB CFE) 12월 CCPP 행사에 WB CFE팀 초청 및 관련 협력방안 논의

4. WB 거버넌스팀 양자면담

□ 일 시: 2025. 10. 21.(화), 17:00-17:30

□ 장 소: WB HQ, Atrium

□ 참석자: 김재형 박사, 김현석 박사(이상 WB), 강동수, 선종인, 홍은선(이상 KDI)

□ 주요 논의내용

○ WB 제도 부서 소개

- WB이 복잡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재정 및 조달(Public Finance and Procurement) ▲공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 ▲공공기관 데이터 및 분석(Public Institutions Data & Analytics)을 세 가지 우선 분야로 선정

유닛명	주요활동
공공재정 및 조달	국가의 공공재정 정책·제도·시스템·절차의 설계와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지원과 글로벌 지식을 제공 • 공공재정관리(PFM) • 개발을 위한 조달(Procurement for Development) • 국내 세수행정(Domestic Revenue Administration) • 공기업(SOE) • 섹터 거버넌스(Governance in Sectors) • 다층정부(Multi-Level Governance) • 기후변화 거버넌스(Climate Change Governance) • 재무적 품질관리(Fiduciary Quality Support)
공공행정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기관을 구축하여 시민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 성장을 촉진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을 지원 • 개발을 위한 글로벌 반부패 프로그램(Global Program on Anticorruption for Development) • 개혁연합(Global Program on Coalitions for Reforms) • GovTech 및 공공부문 혁신(Global Program on GovTech & Public Sector Innovation) • 공공행정 성과 개선(Global Program for Improving Public Administration Performance) • 사법·법치(Global Program on Justice and Rule of Law)
공공기관 데이터 및 분석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전략과 분석을 지원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의제가 개별 활동의 합보다 더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수행 • 권력·이익·자원 배분, 제도·기술 시스템 등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진단 • 각국 공공기관의 역량 평가, 특히 기후변화 대응 같은 복잡한 정책 집행의 제약 분석 • 전 세계 거버넌스 데이터를 수집·정리·공유하는 데이터 허브 운영

- 기존 거버넌스 부서의 조직 개편 이후 현재 김현석 박사는 KDI 세컨디로서 제도 부서 아래 공공재정 및 조달 유닛에 소속되어 있으며, 김재형 박사 또한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 중

○ 공공투자관리(Public Investment Management, PIM) 관련 현황 공유

- 김재형 박사는 각국의 경험과 국제적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국가별 PIM 개혁 과제 해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WB의 PIM 참고가이드*에 저자로서 참여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아직 공공투자관리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

*한국신탁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KDI에서 파트너십 기반 지원을 제공

- IMF는 모든 소득 수준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거버넌스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종합 평가 프레임워크인 공공투자관리평가(PIM Assessment, PIMA) 이니셔티브를 운영 중이며, 공공투자의 3가지 핵심 단계(투자계획, 자원배분, 사업 집행)에 관여하는 15개 제도를 평가
- 현재까지 진행된 PIMA의 결과는 공공투자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 설계보다 실제 실행 역량을 강화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임을 보여주며, 특히 타당성 평가, 사업 선정, 유지보수 관리 등 투자 의사결정 제도의 개선이 시급

5. WB AFE팀 양자면담

☐ 일 시: 2025. 10. 22.(수), 10:00-11:00

☐ 장 소: WB HQ, C1 Cafeteria

☐ 참석자: 조윤영 선임 이코노미스트, 최서은 선임 컨설턴트(이상 WB), 강동수, 선종인, 홍은선(이상 KDI)

☐ 주요 논의내용

- (프로젝트 운영방식 변화) WB 자체 예산 삭감과 집행 관련 타이트한 규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컨설턴트 고용을 통해 진행하던 프로젝트 운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
 - WB 조직 내 행정·정책적 제약으로 인해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PCO 역할까지 진행하는 KDI GKEDC의 역할이 보다 더 커질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향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과 절차적 해결 방안으로 계약 기반의 사업 파트너십 구축을 모색
- (WB 강조 프레임워크) 금년 연차총회에서 WB은 ① 인프라(물리적인 프레임과 인적자원 포함), ② 비즈니스·민간부분 활성화, ③ 지식기반 정책 지원이라는 프레임워크를 강조
 - 관련하여 함께 강조된 핵심 섹터는 에너지, 농업비즈니스, 헬스케어 등 케어 서비스, 경쟁력 있는 제조업, 관광 산업 등을 포함
- (아프리카지역 프로젝트) 아프리카 대상 청년 일자리, 창업(기업가정신),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한국의 소상공인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 사례를 연결해 일자리 창출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 기획
 - 지역 디렉터의 아시아 순방에 맞추어 2026년 3월 16일 주차에 한국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하며, 아프리카 약 6~7개국(국가별 4~5명 수준)으로 예상
 - KAIST는 KDI GKEDC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교육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산업과 창업 측면의 내용으로 추진 예정

※ 후속조치

- (KDI GKEDC → WB AFE팀) TOR 샘플 공유 및 연수 업무 착수

6. WB 페루 에너지팀 양자면담

□ 일 시: 2025. 10. 22.(수), 11:00-11:40

□ 장 소: WB HQ, MC 5-715

□ 참석자: Lara Born 에너지 선임 전문관, Maria Fernanda 컨설턴트(이상 WB),
선종인, 홍은선(이상 KDI)

□ 주요 논의내용

- **(프로젝트 소개)** 효율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분산형 발전 및 전력망 시설
(Distributed Generation and Grid Flexibility for an Efficient Energy
Transition in Peru) 프로젝트 소개
 - 페루 정부의 전력부문 개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책 및 규제 체계 개선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지원
 - ① 중규모 분산형 발전(Mid-size Distributed Generation, MDG) 규제 프레임
워크를 마련하여 2050년까지의 DG 확산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수
립하였으며, 2026년 1분기 내로 규제 초안이 마련이 목표
 - ② 전력계통 유연성(Grid Flexibility) 확장을 위하여 이탈리아 CESI와 협업하
고 있으며, 올해 말 최종 발표 예정
 - ③ 계통 보조서비스(Ancillary Services)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민·관이 참석
하는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 및 국제워크숍(미국 캘리포니아, 브라질, 스
페인, 칠레 등의 사례 공유)을 개최하였으며, 2026년 1월 시장 규정을 최종
적으로 확정하고 공표할 예정
- **(프로젝트 현황)** 2026년 2월 전체 프로젝트 종료 예정이며, 총 예산의 약 66%
가 집행되었고, 나머지 자금 또한 모두 배정 완료된 상황
 - 자금 부족으로 추가적인 현장 방문 계획 無
- **(에너지 모듈화 프로그램 소개)** KDI GKEDC에서 개발 중인 에너지 모듈화 보
고서를 공유하고, 차기 프로젝트에 연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사 전달
 - 페루 사업의 경우, 현 사업으로 규제 프레임워크가 완성되고 나면 이후에는
실제 실행(implementation)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따라서 제안한 에너지 분야
프로그램이 임팩트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WB 에너지팀은 신규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시 해당 사항을 고려할 예정

7. 국제기구 파견직 기획재정부 국·과장 면담

□ 일 시: 2025. 10. 22.(수), 11:00-11:40

□ 장 소: WB HQ, MC 7-100

□ 참석자: 유형선 국장, 박재진 국장, 박재형 국장, 심현우 국장, 이승한 국장, 황석채 팀장(이상 WB), 정유리 국장(IDB), 강동수(KDI)

□ 주요 논의내용

○ KDI GKEDC 기관 소개

- 한국의 발전경험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지식교류플랫폼으로서 지식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전시·교육·국제협력 기능을 수행
- 국제협력은 KDI의 연구역량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기획해 주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수요 맞춤형으로 제공

○ WB 사업 연계

- KDI는 이미 WB 측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요 발굴에 나선다면 사업 연계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각 부서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파견직 관계자들을 주요 채널로 접근해 보기를 제안
- 특히, 아직 KDI GKEDC에서 IFC와의 협력 경험은 없으나, IFC의 경우에도 클라이언트 국가들의 민간 부문 개발을 위해 여러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연수나 콘퍼런스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 예상
- WB 한국 사무소에서 한국 파트너 기관 연결 및 연수 운영 전반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사무소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주제 혹은 시즌에는 KDI GKEDC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협력 경험이 쌓여 향후에는 한국 연수에 있어 WB 사업팀들의 우선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는 비전을 논의

○ IDB 사업 연계

- 지식공유 및 역량강화 컴포넌트를 가진 TC 사업이 다수 있어 KDI GKEDC의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
- 최근 KDI GKEDC가 IDB Invest와 함께 농업비즈니스 연수를 성공적으로 끝낸 만큼, 해당 성과를 중심으로 KDI GKEDC 연수 프로그램만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IDB 내에서도 호응이 있을 것이라 예상

○ KDI GKEDC 연수 예산

- 각 연수 프로그램은 표준 예산을 기반으로 ▲시기 ▲구성 ▲참여국 ▲인원 ▲과업범위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책정되며, 최근 주로 항공료*는 국제기구에
서 직접 집행하고, 인건비 및 연수 사업비만을 계약 예산에 포함하여 진행

*항공료는 다른 예산항목들과 달리 시기 및 지역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

- KDI GKEDC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연수생들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의 모든
경비(숙박비 포함) 및 과업을 포괄하기 때문에 현지 관계자가 없이 단독으로
연수를 운영해야 하는 TTL들이 매우 관심 있어 할 것이라 예상

8. 한국철도산업협회 양자면담

□ 일 시: 2025. 10. 22.(수), 16:30-17:30

□ 장 소: WB HQ, MC 5-715

□ 참석자: 김희락 부회장, 장한별 차장(이상 한국철도산업협회), 강동수, 선종인, 홍은선(이상 KDI)

□ 주요 논의내용

○ KDI GKEDC 기관 소개

- 국제기구의 경우 이미 참석자 모집 및 의제 설정 능력을 보유하고 신뢰성 있는 파트너로 인정받을 시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WB, IDB, EBRD, UNIDO, UNFCCC 등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수행
- 주로 연수·세미나 중심의 지식공유 사업을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IDB Invest의 중남미 농업 비즈니스 연수와 같이 1:1 비즈니스 미팅과 현장방문을 주선했다.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통로 및 사업화 연계 모델로서 확장을 도모
- GKEDC는 국제기구의 성과 및 임팩트 중심으로의 전환 기조를 반영해 후속 사업화로 이어지는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역량강화-사업화-자금조달로 이어지는 과정 중 역량강화 단계에서 정책·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구체화하고 한국의 경험과 모델을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

○ WB과의 협력 추진방안 논의

- WB은 KGGTF, KWPF, KPOK 등 다양한 한국 신탁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KGGTF나 KWPF는 내부 경쟁을 통해 사업 제안서를 선별해 기획재정부가 최종 승인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 기술·정책 연계가 제안서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느냐가 중요
- WB과 ADB 등 다자개발은행들의 본질은 은행이기 때문에 대출 중심 구조라고 볼 수 있으며, 역량강화는 대출을 위한 사전단계로 기능
- 실제 WB 역사상 한국에 대한 최대 대출 분야는 철도였으며, 이후 한국은 1994년에 개도국 지위에서 졸업 후 외환위기 때만 일시 재차 활용

○ 한국철도산업협회의 역할과 협력 가능성 모색

- 한국철도산업협회는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로서 직원 16명 중 일부는 철도공단·공사 파견직이며, 회원사 관리와 민원 대응이 주 업무로 국제협력 전담인력에 한계가 존재

- 하지만 철도산업현황 및 기업역량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KDI GKEDC가 철도 관련 국제기구 사업을 수주 시 협회와 현황조사·기업매칭 협력 가능

※ 후속조치

- (KDI GKEDC → 한국철도산업협회) 2025 지식교류의날 초청 메일 발송
- (KDI GKEDC-한국철도산업협회) 철도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행 시 협력 논의 예정

9. WB KWPF 설명회

□ 일 시: 2025. 10. 23.(목), 10:30-11:30

□ 장 소: WB HQ, MC 7-100

□ 참석자: 유형선 국장, Kevin Yunil Kim 담당관, 이주현 컨설턴트, Sophie Grumelard 사회보장 선임전문관, Immanuel Steinhilper 거버넌스 선임전문관, 홍영기 대외협력 담당관, Shuo Zhang 보건 선임전문관 외 온라인 참석자(이상 WB), 강동수, 선종인, 홍은선(이상 KDI)

□ 주요 논의내용

○ KDI GKEDC 기관 소개

- KDI GKEDC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지식교류플랫폼으로서 지식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전 시·교육·국제협력 기능을 수행
- 국제협력은 KDI의 연구역량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기획해 주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수요 맞춤형으로 제공

○ KDI GKEDC의 역할 및 강점

- WB에서 주관하는 연수는 보통 현지 컨설턴트나 PCO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으나 PCO는 매년 비용이 급등하고 기술·정책 네트워크가 부족해 정부기관·대학·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프로그램 기획에 한계가 존재
- 일반적으로 WB 담당자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여러 파트너기관과 협력하고 싶어 하므로, KDI GKEDC는 공공부문, 학계, 민간부문까지 자연스럽게 프로젝트에 통합하여 정책·전문가 매칭 중심의 프로그램 설계가 가능
- KDI GKEDC는 파트너십보다는 계약 기반으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연구기관이기 때문에 PCO와 달리 간접비를 최소화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지속적인 협업이 가능
- 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연수 수요가 급증하는 시즌에는 모든 수요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우선하여 지원

○ KDI GKEDC 프로그램 소개

- (교육철학) 연수 기간 내에 세부 기술교육은 불가능하지만 참석자가 스스로 핵심 질문을 정의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전문가 및 관계자와 교류함으로써 사고구조를 정리하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지원

○ WB KWPF 프로젝트팀-KDI GKEDC 협력방안 논의

- (IFC) 민간 부문 중심의 자문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 중이며, 그 중 대학의 디지털전환 프로젝트와 한국의 경험을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어 KDI GKEDC가 일주일 연수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는지에 대해 질의

→ KDI GKEDC는 컨설팅 기반의 프로그램 기획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목적, 주제, 참석자 구성, 협력기관 선정에 대한 콘셉트노트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 교육 분야에서는 KDI School을 비롯해 폭넓은 대내외 교수진 및 연구진 풀을 축적하고 있어 빠르게 맞춤형 프로그램 구축 가능

→ 2023년에 진행했던 에듀테크 연수는 1~2일차는 디지털 교육의 전반적 동향과 정책 개요에 대한 강연, 3~4일차는 민간 부문 현장방문 중심이었으며,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한국기업(비상)과의 지속적인 협력 요청을 받아 실질적인 후속 활동을 지원

- (보건·교육·사회보호) ①KDI 내에 보건·교육·사회보호 등을 포함하여 한국의 인간개발 성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지 여부 ②현재 계획 중인 유럽·중아시아 지역의 보건보험관리/감염병감시체계 한국 연수처럼 특정한 분야에 집중된 연수의 경우 KDI GKEDC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에 대해 질의

→ KDI는 본질적으로 정부 싱크탱크*로서 내부 연구진과 교수진이 경제·사회정책·인간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기획재정부 주도 정부 간 협력사업인 KSP의 수행기관으로서 보건보험제도, 교육제도, 사회보장체계 등을 주제로 한 1년 자문 프로그램도 제공

*KDI GKEDC는 WB의 신탁기금 규정상 계약 가능한 기관

→ KDI GKEDC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대형병원 등의 보건 시스템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 연구진 또한 참여하여 통합형 커리큘럼 설계 가능

- (거버넌스·공기업) ①2026년 서울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개최 예정인 공기업 관련 글로벌 포럼에서 KDI GKEDC가 현장 방문이나 부대행사 형태로 협력이 가능한지 ②PCO와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③온라인 연수나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대해 질의

→ KDI는 장기간에 걸쳐 공기업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필요시에는 외부 연구자·기관과도 협력이 가능하고, 공기업 민영화/효율화/지배구조 등의 주제에 있어 세션 구성, 연구 발표, 현장방문 기획 등에 협력 가능

- 컨퍼런스가 2~3일 일정이라면 이를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병행하는 형태도 가능하며, 주제가 확정된다면 KDI GKEDC에서 적절한 한국 기관을 연결하고 방문 일정 조정 가능
- KDI GKEDC는 현재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모델을 시험 중이며, EBRD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관리 모듈을 개설하고 크로아티아·터키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연수를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
- KDI GKEDC는 프로그램 주제에 맞는 전문가를 발굴하고 정책·기술 콘텐츠를 기획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PCO가 제공하는 행사 운영 서비스 이상의 가치를 제공
- **(사회보호·안전망)** 현재 부룬디에서 공공근로를 통한 빈곤층 안전망 및 난민·지역사회 사회통합 프로젝트를 담당 중이며, GKEDC가 전체 프로그램 설계 컨설팅 역할을 맡아 다양한 협력기관을 주제별로 조정해줄 수 있는지 질의
 - KDI는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 경제·사회 모든 요소를 총체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접근하고 있어 다분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적합
 -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경로에 대한 KDI GKEDC의 콘텐츠를 프로젝트 참여국들을 위한 교육용으로 재구성하고 싶다는 WB 측의 제안을 포함하여 콘셉트노트를 공유해 준다면 내부 검토 예정

※ (참고) 설명회 참석자 관련 사업 분야 및 지역 정보

#	사업 분야	조직
1	Agriculture and Food, Africa 2	WB
2	Agriculture and Food,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3	East Asia and Pacific Country Management (China, Mongolia, Korea)	
4	Educati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5	Energy and Extractives, Eastern and Southern Africa	
6	Energy and Extractives, Latin America and Caribbean	
7	Finance, Competitiveness, and Investment, Latin America and Caribbean	
8	Health, Nutrition & Population, Africa	
9	Health, Nutrition & Population, Europe and Central Asia	
10	Health, Nutrition & Population, Europe and Central Asia	
11	Public Finance & Procurement, Governance/Institutions	
12	Public Finance & Procurement, Governance/Institutions	
13	Public Finance & Procurement, Governance/Institutions	
14	Social Protection, Eastern Africa 2	
15	Partnerships and Fundraising, Economics and Private Sector Development	IFC
16	Partnerships and Fundraising, Economics and Private Sector Development	

※ 후속조치

- (WB 부룬디 → KDI GKEDC) 프로젝트 콘셉트노트 공유
- (KDI GKEDC → WB 사회보호·안전망, 보건·교육·사회보호, 거버넌스·공기업, IFC) 프로젝트 세부 사항 파악 및 협력 논의를 위한 후속 메일 발송

10. WB 글로벌 교통팀 면담

□ 일 시: 2025. 10. 23.(목), 12:00-13:00

□ 장 소: WB HQ, MC6-113

□ 참석자: Nicolas Peltier 글로벌 디렉터, Said Dahdah 프로그램 매니저, 조범철 박사(이상 WB), 강동수, 선종인 홍은선(이상 KDI)

□ 주요 논의내용

- (신규 사업제안서 파트너 기관 참여) WB 글로벌 교통팀은 철도 및 물류 디지털화를 위한 한-WB 지식 플랫폼 및 아카데미(Korea-World Bank Knowledge Platform & Academy)를 위해 KDI GKEDC와의 협력을 문의
 - * 지난 9월 17일, 서울에서 글로벌 디렉터와 한 차례 미팅을 진행하였고,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워싱턴 D.C. 출장에서 논의하기로 既협의
 - 프로그램은 3개년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이며, KDI GKEDC는 ①지식이전(한국 철도·물류 디지털화 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 참여); ②기술협력 및 정책지원(현장 방문, 전문가 파견 등 세계은행-KDI 공동 기술·정책자문 수행); ③파일럿 적용 및 차관사업 개발 지원(디지털 철도·물류운영 관련 파일럿 적용, 사업 발굴 단계에서 협력)과 관련해 협력 예정
 - KDI는 인프라, 금융, 경제정책 분석, 타당성 검토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한 경험이 있음을 전달하고, GKEDC는 지식 교류 플랫폼으로서 높은 수준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함을 공유
 - 제안서 제출을 위해 회의록을 한국 신탁기금 제안서에 별첨으로 첨부하여 KDI의 한국 지식 파트너 역할을 명확히 하는데 활용할 예정
- (향후 협업방안 모색) 제안서가 선정되면 2026년 상반기부터 KDI GKEDC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2025 KGID에서 확보한 교통·운송 부문 한국 파트너기관들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

※ 후속조치

- (WB 글로벌 교통팀 → KDI GKEDC) 전체 KWPF 사업제안서 공유

11. IDB Invest 양자면담

□ 일 시: 2025. 10. 23.(목), 14:00-15:00

□ 장 소: IDB Invest 7층 회의실

□ 참석자: Milagros Rivas Saiz 국장, David Brogeras 팀장(이상 IDB Invest). 강동수, 선종인, 홍은선(이상 KDI)

□ 주요 논의내용

- (농업비즈니스 연수 사업보고) KDI GKEDC-IDB Invest LAC 농업비즈니스 분야 디지털전환 연수(25.10.14~17)와 관련하여 실적 및 결과를 공유
 - (실적평가) 전체 총 80건 중 LAC 측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 미팅은 34건(42.5%), 한국 기업 측은 55건(68.8%)이며, 양측 평가가 일치한 미팅은 총 49건(61.3%)으로 향후 지속적인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IDB측 평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진행된 연수로 참가자 전원이 만족했으며, 구성·일정·기업매칭·현장지원 측면에서 모두 기대 이상을 충족하며 2년 전 한국 방문 프로그램보다 완성도가 훨씬 높았다고 평가
- (향후 협력방안 모색)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 협력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
 - IDB Invest 측은 KDI GKEDC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타부서에 공식적인 추천 및 레퍼런스 제공 의사가 있음을 표명
 - 디지털 전환팀은 현재 유사 프로그램을 다른 산업(예: 제조업 등)에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농업비즈니스의 경우는 2년 뒤 유사한 방문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
 - 다만, IDB Invest의 경우 기관 특성상 민간투자의 창구로서 정부 대상 교류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KDI GKEDC와의 협력은 주로 민간·SME·디지털·지속가능성 분야에 특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후속조치

- (KDI GKEDC → IDB Invest) 농업비즈니스 연수 결과보고서 제출 예정

12. IDB 에너지팀 양자면담

□ 일 시: 2025. 10. 23.(목), 16:30-17:30

□ 장 소: IDB HQ, 5층 공용 공간

□ 참석자: 이가영 과장(IDB), 강동수, 선종인, 홍은선(이상 KDI)

□ 주요 논의내용

○ 기관소개

- KDI GKEDC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지식교류플랫폼으로서 지식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전 시·교육·국제협력 기능을 수행
- 국제협력은 KDI의 연구역량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기획해 주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수요 맞춤형으로 제공
- 국제협력의 경우, 주로 ▲WB ▲ADB ▲IDB ▲EBRD 등 다자개발은행과 함께 지식공유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국제협력 예산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 대부분의 국제기구 사업은 수탁계약 방식으로 진행

○ 국제협력 사업 특징

-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주로 1주일 과정으로 구성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공공·민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적 시야 확장과 실행계획 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 공공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1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여 한국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지원
- 즉, KDI GKEDC는 참석자들이 노하우(know-how)보다 노웨어(know-where)를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대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
- KDI GKEDC는 대내외 전문가 네트워크와 연수 프로그램 기획·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국제기구는 참가자 모집 및 자원 조달을 담당하여 개별 프로젝트의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공동 설계

○ IDB 엘살바도르 에너지 프로젝트 진행현황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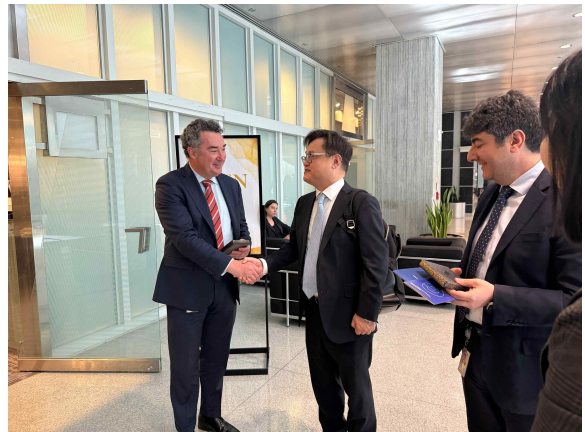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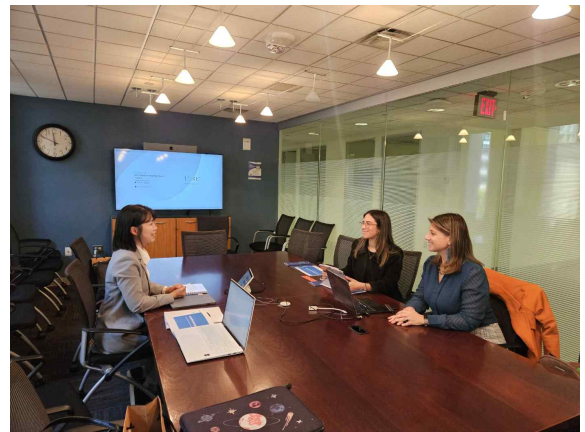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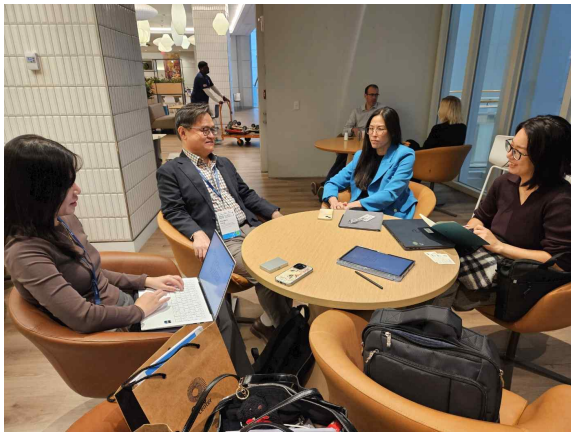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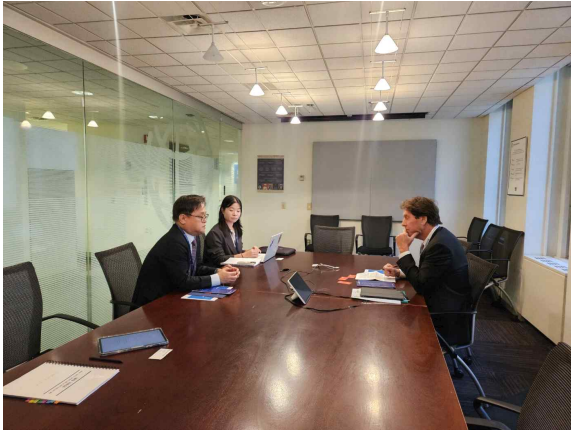
- 이가영 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분야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IDB 내 에너지 부서에서 엘살바도르 에너지 프로젝트를 담당하여 올해 상반기부터 KDI GKEDC와 계속해서 협력을 논의 중

- 엘살바도르 에너지 프로젝트는 IDB TC 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인프라·정책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마지막 단계에서 KDI GKEDC의 지식공유 및 연수 프로그램 연계 예정
- 본래 일정보다 1~2년 정도 지연된 상황이나 올해 말 컴포넌트 1의 입찰이 시작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착수될 예정으로, 컴포넌트 1은 비교적 사업 규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용역이 단일로 나갈지 분할하여 나갈지는 미정
- 첫 입찰이 시작되면 이후 단계별로 다른 컴포넌트들도 입찰이 순차 진행될 계획이며, KDI GKEDC는 컴포넌트 3 역량강화 부문에서 협력할 예정으로 현재 주민재 연구원이 담당하여 소통 중
- 엘살바도르 정부 측의 세부 요청 사항이 많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단기 연수로는 모두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만큼 한국 연수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

※ 후속조치

- (KDI GKEDC → IDB 엘살바도르) 프로그램 수정 예산안 공유 예정
- (KDI GKEDC-IDB 엘살바도르) 연수 프로그램 시기, 예산, 규모 등 전반에 대해 조율 필요

※ 양자면담 사진



6

향후 추진계획 및 평가

□ 향후 추진계획

- (2025년 ~) 후속회의를 통한 협력사업 구체화
- 후속조치 관련 기관 관계자 정보

#	기관/부서명	관계자 성함	주요 내용
1	WB AFE팀	조운영, 최서은	• WB KWPF AFE 연수 프로그램 세부 업무협의
2	WB 모리셔스팀	Ana Bucher, 손민지	• WB 모리셔스 연수 프로그램 세부 업무협의
3	IDB 엘살바도르팀	이가영	• IDB 엘살바도르 에너지 TA 관련 세부 업무협의
4	WB 글로벌 교통팀	Nicolas Peltier, 조범철	• WB KWPF 철도 프로젝트 관련 협력 논의
5	WB 부룬디팀	Sophie Grumelard	• WB KWPF 부룬디 프로젝트 관련 협력 논의
6	IFC	심현우, 홍영기	• IFC 프로젝트 연계 연수 관련 협력 논의
7	WB 공기업팀	Immanuel Steinhilper	• 2026년도 공기업 행사 관련 협력 논의
8	WB 보건팀	Shuo Zhang	• WB 유럽·중앙아시아 보건 연수 관련 협력 논의
9	WB 기후변화그룹	Chandra Shekhar Sinha, Pierre Guiogon, 김서이	• WB CFE 및 PMI 관련 협력 논의
10	WB 동아프리카 교통팀	Fang Xu	• WB 아프리카 모빌리티 프로젝트 관련 협력 논의
11	WB 몽골 환경팀	Sameer Akbar	• WB 몽골 대기질 연수 관련 세부 업무협의
12	WB 페루팀	Lara Born, Maria Fernanda Silva Tejada	• WB 중남미 에너지 프로젝트 발굴 관련 논의
13	WB 도시팀	김민경	• 웨비나 등 협력 방안 논의

□ 평가

- (2025 KGID 행사 참석) KDI GKEDC는 국제협력 분야의 중요한 국제기구 파트너인 WB KGGTF에서 주최한 KGID 행사에 3년 연속 참여함으로써 양 기관 간 파트너십을 공고화하고 녹색성장·기후대응 관련 네트워크를 확대
 - KGID 행사의 1일차 주요 세션인 지속가능한 일자리 세션과 2일차 분과별 세션 중 하나인 기후금융 세션에서 각각 패널 및 발제자로 참석함으로써 국내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KDI GKEDC 기관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홍보
- (양자면담 진행 및 협력사업 발굴) 출장기간 동안 KGID의 일환으로 KGGTF에서 주관한 양자면담과 기관 차원에서 조율한 자체면담을 총 12건 진행하여,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한 업무협의를 물론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

- 특히, KGID 양자면담 중 하나인 WB 기후변화그룹과의 면담을 통해 12월 개최 예정인 기후투자포럼을 위한 아이디어 및 WB 네트워크를 확보했으며, KWPF 설명회를 통해 면담한 WB 부룬디팀, 거버넌스팀, 보건팀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수요를 가지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실제 협력으로 발전 가능할 것으로 평가
- (종합) KGID 행사 참석 및 양자면담 진행을 위해 추진한 본 출장을 통해 WB 및 DIB 등 핵심 국제기구 파트너와 직접 만나 최근의 지식교류 협력 수요와 동향을 파악하고 기관 간 협력 채널을 확장했으며, 다수의 공식·비공식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신규사업 발굴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